KAA 저널

Voice of Korea Advertisers 2005 01 · 02

C . O . N . T . E . N . T .

7. 신년사

8. 시론
2005년 광고시장의 재도약을 위하여

9. |특집| 방송광고 규제의 위헌성
방송광고판매 독점의 법률적 문제점 | 김기원
텔레비전 간접광고(PPL) 규제의 법률적 문제점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 행위 | 문재완

16. 특별기고
방송광고 심의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 | 신상순

19. 세미나 중계

20. KAA 포커스
광고 미디어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디어리서치 | 박정래

22. 해외소식
2005년 세계 광고시장 전망

25. Global News

26. 내가 좋아하는 광고
제2의 창작 세계, 패러디 광고 | 최준영

28. 신입회원사
신한금융지주회사
KT&G

30. 협회 소식

31. KAA 광장

37. 광고주 메뉴얼①
준비된 광고담당자 되기 | 임성빈

www.kaa.or.kr

KAA저널 2005년 01+02(통권 159호) 2005년 2월 2일 발행 · 발행인 민병준 · 편집인 김이환 · 취재편집 곽 혁, 이수지 · 편집위원 김상훈 인하대 교수, 한광섭 삼성 구조본 부장, 이준희 동아제약 팀장, 박형재 한국코카콜라 부장 · 디자인 진화기획(733-4393) · 원색분해 삼광프로세스 · 인쇄 SM갤러리 · 발행처 한국광고주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18층 Tel 02-782-8390 Fax 02-780-2391

광고산업이 발전해야만 경제선진국도 가능합니다

민병준 | 한국광고주협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광고인 여러분!

지난 한해 광고계는 IMF 이후 최악의 불황에 직면했습니다. 소비시장이 얼어붙다 보니 광고도 많이 줄고, 매체사는 광고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올해는 대통령도 국정의 최대 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여야도 정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새해 들어 경제를 살리자는 여론이 많이 조성되어 매우 희망적입니다. 2005년 을유년은 우리 모두의 기원대로 경제가 회복되고 광고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광고주협회는 그동안 광고의 자유 신장과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광고산업이 발전해야만 경제선진국도 가능하고 언론의 자유 신장이나 국민의 복리증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고가 국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올해 한국광고주협회는 다음과 같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돕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정진할 것입니다.

첫째, 회원사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 수립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브랜드야말로 우리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여 해외의 최신 마케팅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회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관련 조사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통합마케팅의 최적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추세에 맞추어 회원들이 신속히 미디어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업종별, 매체별 광고경기 동향 분석 및 시장전망으로 예측 가능한 광고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째, 합리적인 광고거래질서 구축 및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중간광고금지, KOBACO, 방송광고사전심의 등 우리나라는 광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합리한 광고거래질서 개선과 합리적인 광고요금 및 판매방식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넷째, 자유시장경제 정착 및 기업과 광고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사업도 더욱 활발히 벌여나갈 것입니다. 기업 및 광고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야말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해 다각적인 사업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회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회원사업 내실화에도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협회는 올 한해 신규회원 가입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사무국과 회원, 회원과 회원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위원회 활동과 워크숍 등을 통해 회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 및 광고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닭은 예로부터 다섯 가지 덕을 지녔다 해서 길조(吉鳥)로 여겨져 왔습니다. 관(冠)을 닮은 볏은 문(文)을, 내치기를 잘하는 발은 무(武)를, 적과 맹렬히 싸우는 기운은 용(勇)을, 먹이가 있으면 무리를 불러 같이 먹는 품성은 인(仁)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간을 알려주는 부지런함은 신(信)을 각각 상징합니다. 조상들은‘ 오복을 불러오는 데다 인간에게 알과 고기까지 주니 이보다 더한 익조(益鳥)가 어디 있겠느냐 며 유난히 닭을 아꼈습니다. 을유년 닭의 해, 여러분 모두에게 활기와 희망과 기쁨을 주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